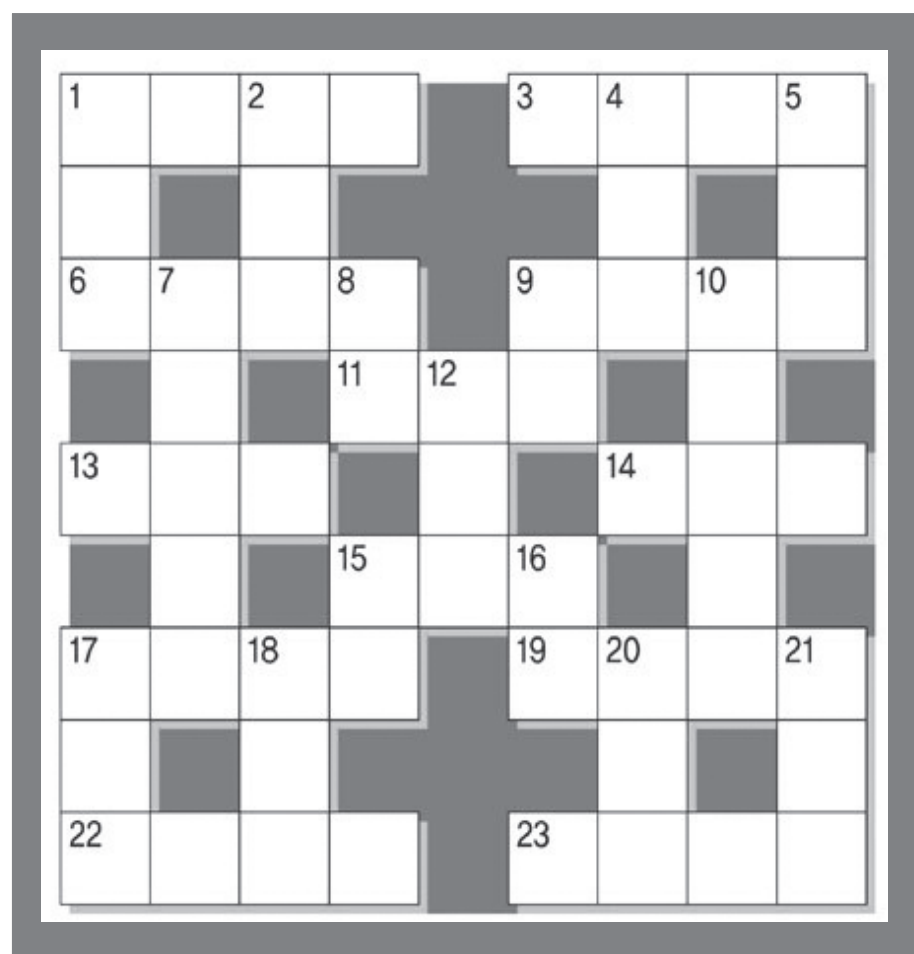


# { 심심풀이 낱말풀이 }



### <가로 열쇠>

- 1) 배관을 통하여 가정이나 공장 등에 공급되는 연료 가스.
- 3) 오륜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는 친애에 있음.
- 6) 발이 굵은 국수의 하나. 또는 그것을 삶아 맑은장국에 요리한 음식.
- 9) 거적을 깔고 앞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11) 대학이나 대학의 연구실을 비유하는 말.
- 13) 남자의 성 앞에 붙이는 영어식 호칭.
- 14) 관청이나 회사에서 월급과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
- 15)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뿜는 곳. 방앗간.
- 17) 호소문이나 격문 따위를 쓸 때에, 주모자를 숨기기 위하여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등글게 뺀 돌려 적은 통문.
- 19)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시골이나 교외의 신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 22)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감을 두고 이르는 말.
- 23)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 <세로 열쇠>

- 11) 신라 유리왕 때 지어진 노래. 우리나라 가악의 시조로 삼국사기에 실려 전함.
- 2) 고대 부족 국가 시대, 낙동강 하류에 일어난 나라들을 통틀어 이르던 말.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등의 여섯 나라로 이루어짐.
- 4) 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렸다는 낙랑에 있던 북.
- 5)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 7) 오늘날의 아재 개그,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 8) 상을 받음.
- 9) 돌로 쌓은 탑. 돌탑.
- 10) 조선 말기, 1861년에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의 지도.
- 12)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나 곤충,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 15) 건물의 정면에 있는 추가 되는 문. ○○을 통과하다.
- 16) 조선시대에 제작된 화약병기인 이총통에 넣고 쏘았던 화살.
- 17) 사돈댁의 높임말.
- 18) 쪼거나 찌개지 않은 통째의 나무.
- 20) 글을 쓰기 편리하게 만든, 일정한 규격의 종이.
- 21) 도시의 큰 길거리를 이루는 지역.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 Calvin and Hobbes



### 오늘의 역사 (1965년 6월 12일)

#### 메사돈 사건, 정치문제화



1965년 6월 12일 합성마약 메사돈을 넣어 진통제를 불법 제조, 판매해온 국도계약사의 박인선씨가 구속됐다. 보건사회부는 의약품에서 검출된 이물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해 고심하던 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이 제3의 물질이 합성마약 메사돈임을 밝혀냈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안 메사돈은 농어촌, 낙도, 사창가 등 도처에 파고들어 당국의 공식추계로도 1만 5천~2만(전문가들의 견해로는 10만)의 중독자를 낳았다.

조사과정에서 마약제조범은 서울대 약대 출신의 임국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영남, 유니언, 백삼자 등 10여 개의 회사가 관련되었음이 드러났으며, 충북 약무계장 이재욱 등 보사부 관리와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신관우가 수뢰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마약을 허가된 의약품에 섞어 제조, 판매했다는 점과, 이를 정부 관리나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고 묵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사진설명: 합성마약 메사돈을 넣어 불법제조한 진통제.

#### 그해 오늘 무슨일이...(6월 12일)

- 2010년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 무단 방북
- 2009년 이란 대선,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현 대통령 재선
- 2005년 김대중 전 대통령, 독일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 수여
- 2003년 16만년 전 최고(最古) 인류 유골 발견
- 1995년 북미 준고위급회담서 경수호 지원협상 타결
- 1994년 오스트리아 EU가입 결정
- 1992년 브라질에서 '지구환경정상회담' 개막
- 198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리돼 연구기관으로 독립
- 1989년 알폰신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임
- 1986년 언론인 선우휘 선상 사망
- 1985년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연합(EC) 가입
- 1984년 코메콘 정상회담 모스크바서 개막
- 1983년 경상남도 양산군서 열차, 버스 충돌, 6명사망 35명 부상
- 1983년 한국,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에서 4위 기록
- 1982년 5백원짜리 새주화 발행
- 1981년 한국언론연구원 발족, 초대 이사장에 조선일보사 방우영 사장 취임
- 1980년 오히라 일본 수상 과로로 사망
- 1975년 인도 고법, 간디수상 선거부정 유죄판결
- 1973년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서 개최
- 1972년 법률구조협회발족
- 1829년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작가 슈피리 출생
- 1942년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를 쓰기 시작
- 1929년 안네 프랑크 출생
- 1829년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작가 슈피리 출생
- 1494년 남아메리카 대륙 발견

##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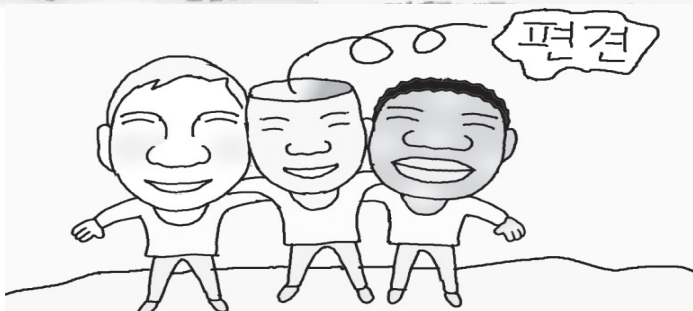
FEELING PUPIL DISCOVERED LOVE RIPENED

"I have \_\_\_\_\_ that my interest in my dear \_\_\_\_\_, Mabel, has \_\_\_\_\_ into a far deeper \_\_\_\_\_ than that of mere friendship. In fact, I know that I have learned to \_\_\_\_\_ her very sincerely."

-Alexander Graham Bell 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맨 밑에..

### 이주의 영어 한마디

#### 인종주의 편견의 심리학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맹을 'color-blind'라고 한다. 그런데 color-blind에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이라는 뜻도 있다. 피부 색깔을 차별하지(classify and discriminate skin colors)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크리스 무니는 "인간은 원래 인종적 편견을 갖고 태어나는(be born with racial prejudice)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짓다가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는 (be fixed and become permanent) 것이 편견이다. 남성과 여성, 개와 고양이, 검은색과 하얀색 등 인간은 뭉치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가령 뱀이나 벼룩은 독이 있는 (be poisonous) 것이 많다거나, 호랑이와 사자는 뭉치지 잡아먹는다는 무의식적 편견(unconscious bias)이 생긴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 파일 서랍장 같은 것이어서 모든 개념을 뇌 속의 각기 다른 서류철에 분류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어질(lead to false and inaccurate prejudice and stereotype)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흑인·유색인종(colored races)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들이 타고난 불변의 속성(inherent and immutable qualities)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해버린다(boil down to conclude).

로 이어질(lead to false and inaccurate prejudice and stereotype)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흑인·유색인종(colored races)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들이 타고난 불변의 속성(inherent and immutable qualities)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해버린다(boil down to conclude).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네끼리 싸운다(quarrel among themselves)" "중국인들은 더럽고 시끄럽다(dirty and noisy)" "흑인들은 추잡한데 (be filthy), 춤은 잘 추고 스포츠에 뛰어나다"는 등 순간적·자동적으로 특정한 추측을 떠올리는 (instantaneously and automatically come up with a certain assumption) 것이 모두 부당한 편견(wrongful bias)이라는 얘기다.

인간은 떼거리 동물(herd animals), 부족·종족 생물(tribal creatures)이라고 한다.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대상에겐 적대감(hostility), 비슷한 대상에겐 편애를 보이는(show favoritism

toward them)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상대를 만나면 우선 내 편, 네 편을 가른다. 그리고 조금만 떼거리로 행동하게끔 떠밀면 (give them the slightest push toward behaving tribally) 가까이 광적인 무리를 지어 공격한다.

이런 점에서 인종은 더할 나위 없는 구분 기준이 된다.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from the point of evolutionary view) 약탈하는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살아 남아야 (survive an attack from a marauding tribe) 했던 원시의 두려움(primal fear)이 배타적 인종주의 유전자로 굳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공연한 인종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릴 (snuff out the overt racism) 방도는 없는 걸까. 일단 허황된 편견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 (psychological pathway)를 이해하고,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의식적으로 훈련을 시켜 원시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한다.

Answers: "I have discovered that my interest in my dear pupil, Mabel, has ripened into a far deeper feeling than that of mere friendship. In fact, I know that I have learned to love her very sincerely."